

MBN

# 정부, 드라이브스루 등 'K-방역모델' 국제표준화 추진

기사입력 2020-04-26 17:17



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운영 (CG) / 사진=연합뉴스

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팬데믹(세계적 대유행)을 계기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'K-방역모델'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합니다.

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전 세계가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K-방역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오늘(26일) 밝혔습니다.

정부는 검사·확진·역학·추적·격리·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절차와 기법 등을 체계화해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.

이렇게 제안된 표준안은 세계 각국 전문가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제정할지를 결정합니다.

한국이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K-방역모델은 자동차 이동형(Drive Thru·드라이브스루)·도보 이동형

(Walk Thru·워크스루) 선별진료소 검사 운영 절차, 생활치료센터 운영모형 등입니다.

앞서 코로나19 진단기법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기법(RT-PCR)은 2월 국제표준안 투표를 통과해 11월 국제표준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.

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표준안도 7일 ISO에 신규 표준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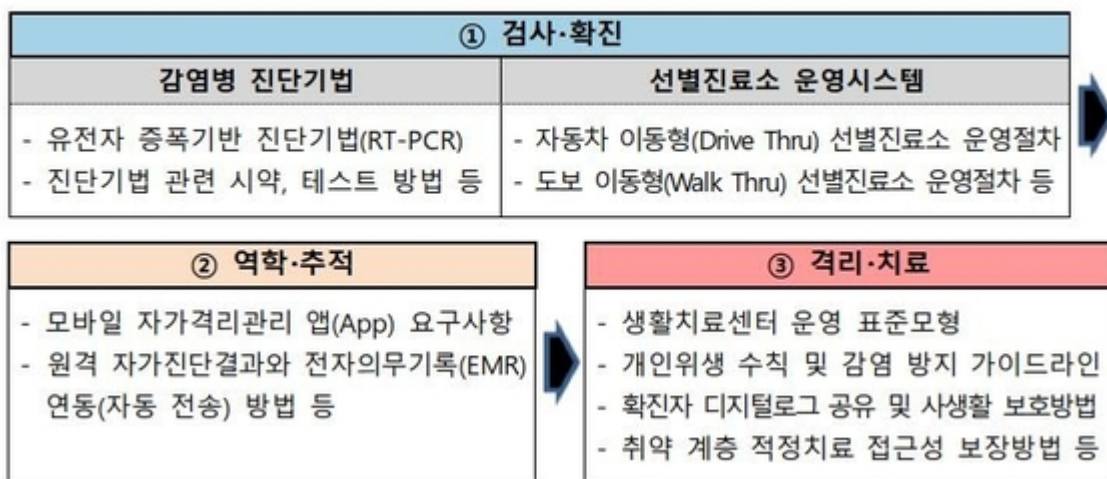
또 ISO 아시아 지역사무소가 K-방역모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23일 화상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.

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, 보건복지부, 식약처,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, 진단키트·장비업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추진합니다.

협의체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가 참여하는 '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 협력 총괄 태스크포스(TF)'와도 긴밀히 협력해 K-방역모델 확산에 일조할 계획입니다.

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"K-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는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"이라며 "민·관이 힘을 모아 K-방역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

### < K-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분야(안) >



K-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분야(안) / 사진=산업부 제공

[MBN 온라인뉴스팀]

▶ 네이버 메인에서 MBN뉴스를 만나보세요!

▶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!

▶ 김주하의 '이 한 장의 사진'

< Copyright © MBN(www.mbn.co.kr)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>

---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57&aid=0001448395>

---